

## 아동의 부적응 행동 및 가족 기능 양상과 가족 체계 유형과의 상호관계

엄 명 용\*

- |      |                  |
|------|------------------|
| I.   | 연구 배경 및 목적       |
| II.  | 가족 체계 유형 모델의 소개  |
| III. | 검증 모델의 구성 및 연구가설 |
| IV.  | 연구방법             |
| V.   | 결과               |
| VI.  | 논의 및 함의          |

### I.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일탈 행동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다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청소년기의 일탈행동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심각한 일탈 행동이 표출되기 전인 아동기의 행동을 관찰하여 일탈행동을 야기하는 여러 요인들을 확인한 후 이를 미리 제거 또는 완화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어느 한 요인 또는 하나의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 행동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아동의 신체적 상태, 인간 상호관계 형태, 아동이 속한 가정, 그리고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상황 등 다면적 수준에서의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분석을 필요로 한다.<sup>1)</sup>

인간의 발달과정상 아동기는 가정에 대한 의존이 가장 큰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아동이 속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세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발달과 사회화 기능의 수행을 촉진할 수도, 또는 방해할 수도 있는 관계 형태들이 가정 내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부적응 현상은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족의 역기능이 어린이를 통해 대신 표출된 것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다시 가정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도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사업의 개입 방향이 아동 개인의 안전 보호만을 생각하는 아동보호 위주의 사업<sup>2)</sup>에서 가족에 초점을 둔 가족 개입의 예방적 서비스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sup>3)</sup> 이것은 아동이 가족 속에서 정서·신체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최선이라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동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가정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지만 가정 환경의 특성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를 보여왔다. 가족의 특성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 경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태도나 양육방식, 부모-자녀 관계, 부부관계 등 부모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 특성을 연구한 논문들과<sup>4)</sup> 가정을 일부

- 1) 이러한 관점을 생태적 관점(ecological perspective)라고 하는데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아동 행동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 체계들간의 관계 망에 의해 결정된다 (아동자신, 가정, 학교 등이 지역사회 하위 체계들 등). 둘째, 각 수준에서 하위체계 구성요소들은 상호 의존적으로 기능 한다. 셋째, 각 수준은 상위 및 하위 체계의 역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R. G. Wahler, & J. E. Dumas, "Changing the observational coding style of insular and noninsular mothers: A step toward maintenance." In R. F. Dangel & R. A. Polster (Eds.), Parent training: Foundations of research and practice. New Your: Guilford Press, 1984. p. 381을 참고할 것.
- 2) 이것은 child protective services라는 말로 대표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아동학대 및 유기에 대한 사회사업의 개입이 대표적이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가정 밖에서의 보호(Out-of-Home Care)를 주로 실시한다. Out-of-Home Care에는 가정위탁보호(family foster care), 친척보호(kinship care), 집단주거보호(residential group care), 입양(adoption) 등을 들 수 있다.
- 3) D. S. Liederman, "Child welfare overview",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 1995, p.424.
- 4) 부모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내 연구로서는, 이기영, 박인숙, 이강이, "어머니가 지각한 국민학교 고학년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대전 시내 일부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충남의대잡지』, 17(2), 1990, pp. 525-546; 이길홍, 김현수, 민병근, "학생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의 심리풍토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상관분석", 『신경정신의학』, 21(4), pp. 611-627; 이명숙, 김영미, "가족구조와 부모불화가 청소년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1993, pp. 201-216; 황혜자, "부모-자녀 관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8, 1984, pp. 237-271 등을, 해외연구로서는, J.E. Dumas & C.W. Wahler, "Indiscriminate

로서가 아닌 전체로서 개념화 하고자 했던 연구들<sup>5)</sup>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가족을 전체로서 개념화한 연구에서는 아동을 포함하는 가족 관계 양상, 즉 전체적인 가족 관계 양상, 또는 가족관계 맥락에 초점을 두고 가족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로 간주한다. 가족 구성원의 부적응 문제, 특히 아동의 부적응 문제는 아동 개인 자신의 부적응, 부모 중 어느 한 사람과의 관계상의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아동과 부부 및 다른 가족원 모두를 전체로 보고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 형태의 관찰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 적응 면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양상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가족들의 수용 또는 대응 형태에 따라서 중화되고 예방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개인적 부적응 행동이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형태에 의해 영향받아 나타나는 하나의 증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형태란 가족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해 가는 형태와 과정을 의미한다.<sup>6)</sup> 가정 생활의 형태와 과정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누적된 가족 전체의 병리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가족체계 이론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 체계의 어떤 특성이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가를 가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족 전체의 상호 작용 형태의 적절한 정의와 정의된 것에 대한 정확한 측정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1970년대 후반부터 있어 왔는데 이것이 가족 체계의 유형화에 대한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 학자들<sup>7)</sup>

mothering as a contextual factor in aggressive-oppositional child behavior: Damned if you do and damned if you do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3(1), 1985, pp. 1-17; R.E. Emery & K.D. O'Leary, "Children's perceptions of marital discord and behavior problem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1), pp. 11-24; E.N. Jouriles, J. Barling & K.D. O'Leary, "Predicting child behavior problems in maritally violent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2), 1987, pp. 165-173; E.N. Jouriles, C.M. Murphy & K.D. O'Leary, "Interspousal aggression, marital discord, and child proble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3), pp. 453-455; J.C. Peery, S. Jensen & G.R. Adam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ttitudes toward child rearing and the sociometric status of their pre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Psychology*, 119(6), 1985, pp. 567-574; 등을 참고할 것.

5) 김경희, "아동의 문제행동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의 관계", 『목포대학교논문집』, 17(1), 1996, pp. 513-524. 이 연구에서 저자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으로서 갈등적 가정, 폐쇄적 가정 등의 변인을 측정하여(p.516, 518) 아동 문제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6) Haley와 Jackson은 이것을 가족규칙들(family rules)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자세한 개념은 J. Haley, "Research on family patterns: An instrument of measurement," *Family Process*, 3, 1964, pp. 41-65; D. D. Jackson, "The Study of the Family", *Family Process*, 4, 1965, pp. 1-20.을 참고할 것.

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의 여러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성 있게 수정되어 온 Olson Circumplex Model<sup>8)</sup>의 기본 구도를 참고하면서 그의 수정된 점수 방식(scoring method)을 도입하여 새로운 가족 체계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일반 아동들의 부적응 행동의 다양성을 살펴본 후 그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 영역에서의 부적응 행동 수준과 기타 가족 기능이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정의된 가족 체계 유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Olson의 모델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 의미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검증하고, 동시에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적응 행동 중에서 어떤 행동이 새로 제시된 가족 체계유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주 양육자의 결혼 만족도, 부부간의 의견 일치도, 부모-자녀간 관계상의 문제 등에 의해 나타나는 가족의 기능 양상이 새로이 제시된 가족 체계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가의 여부와 이들 기능 양상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가도 밝혀 보려 한다.

## II. 가족 체계 유형 모델의 소개

가족 체계 유형에 대한 분류 노력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Kantor-Lehr의 가족유형(Kantor & Lehr's Family Typology)<sup>9)</sup>, Reiss의 가족모형(Reiss's Family Paradigms)<sup>10)</sup>, Beavers의 기능수준 모델(Beavers' Levels of Functioning)<sup>11)</sup>,

7) 가족 체계 유형 분류 노력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Kantor-Lehr의 가족유형 (D. Kantor & W. Lehr, Inside the family: Toward a theory of family process, San Francisco: Jossey-Bass, 1975 참고), Reiss의 가족모형 (D. Reiss, The family's construction of reality,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1981 참고), Beavers의 기능수준 모델 (W.R. Beavers, Psychotherapy and growth: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New York, Brunner/Mazel, 1977; W.R. Beavers & M.N. Voeller, "Family Models: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 1983, pp. 85-98 참고), Olson, Sprenkle 및 Russell의 통합 모형(Olson Circumplex Model)(D.H. Olson, D.H. Sprenkle, & C. Russell,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1979, pp. 3-28 참고) 등을 들 수 있다.

8) D.H. Olson, D.H. Sprenkle, & C. Russell, 앞의 글, 1979, pp. 3-28. 이 모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짐.

9) D. Kantor, & W. Lehr, Inside the family: Toward a theory of family process, San Francisco: Jossey-Bass, 1975.

Olson, Sprenkle 및 Russell의 통합모형(Olson Circumplex Model)<sup>12)</sup>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중, Olson Circumplex Model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을 간략히 소개한 후 본 연구에서 사용될 Olson Model은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1. 관련 가족 체계 모델

먼저, Kantor와 Lehr의 가족유형에서는 가족 체계가 갖고 있는 경계의 특성에 따라서 가족을 개방(open), 폐쇄(closed) 및 임의(random)의 세 가지 체계로 분류하였다. 개방적 가족 체계 내에서는 분명하지만 통과 가능한 경계가 존재하여 가족과 외부와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족 체계 내부의 구성원들은 분명하고 정직한 상호 교환을 추구하며, 유연성에서 나오는 타협,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적응이 장려된다. 또한 개인 권리가 인정되고 자신과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기대된다. 폐쇄적 가족 체계는 비교적 불투명하고 통과하기 어려운 경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가족과 외부와의 교류가 통제되어 활발치 못하다. 여기서는 규칙과 위계질서가 강조되며 가족 전체의 이익이 가족원 개개인의 욕구에 우선시된다. 임의 가족 체계는 가족과 외부사이의 경계가 거의 없어 가족과 외부 사회 사이에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끈이 없으며, 가족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도 없고 행동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각 구성원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Kantor와 Lehr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가족 체계가 나름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극단적 개방, 폐쇄 및 임의 가족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역기능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Reiss의 가족모형에서는 가족과 환경과의 상호관계 형태를 "family paradigm"이라 정의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세 가지 가족 체계 유형을 제시하였다. 환경 반응가족(environment-sensitive family)은 외부 세계를 질서 정연하고 이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반응 양상을 갖고있다. 무상호성 가정(interpersonal

10) D. Reiss, The family's construction of reality,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1981.

11) W.R. Beavers, Psychotherapy and growth: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New York, Brunner/Mazel, 1977; W.R. Beavers & M.N. Voeller, "Family Models: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 1983, pp. 85-98.

12) 최초의 모형은 D.H. Olson, D.H. Sprenkle, & C. Russell,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1979, pp. 3-28을 참고 할 것.

distance-sensitive family)은 자신의 자율성, 독립성을 과신하여 타인과의 상호 교류를 부정적으로 본다. 외부인과의 상호교류는 유약한 행위로 받아들인다. 의견일치가족 (consensus-sensitive family)은 외부세계는 혼돈스럽기 때문에 가족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의견도 항상 일치되어야 가족이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Reiss의 가족모형은 임상 실제 상황에 충분히 파고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sup>13)</sup>

Beavers의 기능수준 모델은 가족 가족구조, 가족의 유연성, 가족 및 각 가족구성원들의 역량 등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한 차원(수평차원)으로 하고 가족 스타일을 다른 한 차원(수직차원)으로 해서 교차시킴으로써 가족 유형을 나누고 있다. 즉, 수평차원의 변수는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의 차례로, "극도 혼란", "경계선", "중간", "적절", "최적"의 5가지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직적 차원은 수직 방향의 아래쪽 방향은 "구심성", 위쪽 방향은 "원심성"의 두 가지 스타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원심성 가족 양식은 가족원들이 가족 내부에서 보다 가족 외부에서 더 많은 만족을 발견하여 가족 밖으로 나가려는 경향을 가진 가족을 의미한다. 반면에, 구심성 가족 양식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은 인간 관계상의 만족을 가족 외부 보다는 가족 내부에서 더 많이 찾으려 한다. 따라서 가족 스타일 차원은 곡선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구심성과 원심성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이 순기능적 가족일 가능성이 큰 반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가족은 역기능적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을 차례로 교차 결합하여 아홉 가지의 가족 유형이 제시되었다. 즉, "극도 혼란 원심성 가족", "극도 혼란 구심성 가족", "경계선 원심성 가족", "경계선 구심성 가족", "중간 혼합 가족", "중간 원심성 가족", "중간 구심성 가족", "적절 가족", "최적 가족" 등이다. 극도 혼란 구심성 가족 유형에서는 가족원들이 서로 뒤엎혀 있고 밀착되어 있어 지나친 경우 정신분열증을 가진 아동이 종종 생겨 날 수 있다고 보았고 중간 구심성 가족 유형에서는 신경증 아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극도 혼란 원심성 가족 유형 하에서는 가족들의 이탈과정이 쉽게 일어나 심할 경우 반사회적, 비사회적 아동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으며 중간 원심성 가족 유형에서는 행동장애아가 가끔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적절 및 최적 가족에서는 가족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모델은 개념적인 면에서 임상적 효용성이 크다고 보나 그것이 제시하고 있는 가설 검증에 필요한 측정 도구가 적절히

13) A. Bentovim & W. Kinston, "Focal family therapy: Joining systems theory with psychodynamic understanding." In A.S. Gurman & D.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Vol. II, 1991, p. 291.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 2. Olson Circumplex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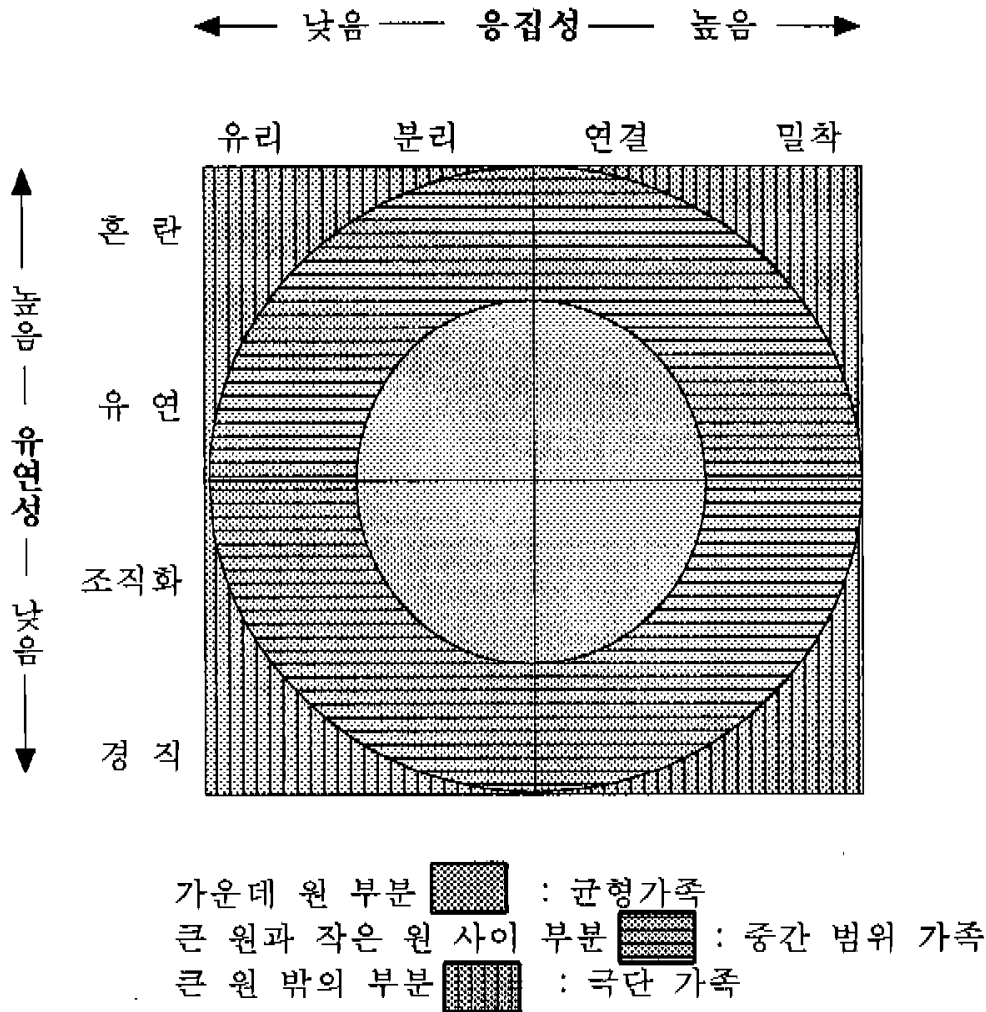
Olson의 가족 사정(査定) 모델은 가족 임상 또는 가족치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 그리고 경험적 연구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했다.<sup>14)</sup> 다양한 가족치료 방법들이 나름대로의 개념과 치료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각 치료 방법 및 이론들에 공통되는 개념과 원리들을 분류, 통합하여 가족 관계 역동의 이론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가족 관계 역동을 나타내는 공통된 개념들을 분류,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 개념 차원-가족응집성(cohesion), 가족적응성(adaptability), 그리고 가족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가족 의사소통은 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가지 핵심적 차원의 변화, 이동 또는 수정을 촉진하는 요소로 간주되어 Circumplex Model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제외되고 응집성과 적응성 차원만이 모델의 두 가지 주요 개념 차원으로 자리 잡았다.

Olson Circumplex Model이 제시하고 있는 가설은 가족 관계 역동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기본 차원인 응집성과 적응성(변화성)을 각각 네 수준으로 나눈 후 응집성을 수평축, 적응성을 수직축으로 하여 서로 교차시켜 발생되는 16개의 가정 유형에서 출발한다. 응집성은 유리(disengaged), 분리(separated), 연결(connected), 밀착(enmeshed)의 네 수준으로, 적응성은 경직(rigid), 조직화(organized), 유연(flexible), 혼란(chaotic)의 네 수준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가족 기능과 관련하여 응집성 및 적응성을 직선적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곡선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응집성이나 적응성이 강할수록 가족 기능이 원활해지기보다는 응집성 및 적응성이 지나치게 약한 경우와 지나치게 강한 경우는 오히려 가족 역기능 현상을 초래하고 두 차원 모두 적절한 수준일 때만이 가족 기능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곡선적 성격을 가진 두 차원 모두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는 두 차원의 교차점 부근에 분포하는 가족(<그림 1>에서, 균형가족)일수록 순기능 가족이며, 극단적 수준의 두 차원이 교차해서 만드는 4개의 극단 지점 부근<sup>15)</sup>에 분포하는 가족(<그림 1>에서, 극단 가족)은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보았다. 정리하면 역기능 가족은 극단의 가족 유형에서 많이 발견되고 순기능 가족은 균형

14) D.H. Olson, "Circumplex Model VII: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25, 1986, pp. 337-351.

15) 밀착-혼란, 밀착-경직, 유리-혼란, 유리-경직이 교차하는 네 지점 부근을 의미함.

가족 유형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림 1> Olson Circumplex Model (초기)

이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병리적인 가족만을 유형 분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모델을 통해 순기능과 역기능의 연속선상에서 모든 가족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자신의 모델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측정 도구인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FACES)를<sup>16)</sup>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모델

16) 이 도구는 처음에는 자기 보고형 index로서 111 문항이었다가 FACES II에서는 30문항으로 수정 되었으며, FACES III는 20 문항으로 되어있다. 현재 FACES IV가 개발되는 과정에 있다. FACES III는 D. H. Olson, J. Portner, and Y. Lave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n D. Olson, H. McCubbin, H. Barnes, A. Larson, M.



에서 출발된 가설에 대한 많은 검증 작업이 있어 왔고, 그것들로 인해 Olson 모델이 나타내는 개념 및 가설의 수정이 가능했다. Olson 모델에 대한 검증 결과와 그 결과로 인해 모델이 제시하는 개념 및 가설이 어떤 수정 절차를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논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Olson의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개념 차원인 응집성과 적응성의 내용과 그 내용이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응집성과 적응성은 Olson, Russel, 및 Sprenkle<sup>17)</sup> 이 자신들의 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차원으로 삼기 이전의 가족 이론가들, 그리고 그들과 동시대에 속한 많은 가족 이론가 또는 치료자들에 의하여 각기 독립적으로 선택되어 그들의 연구 및 치료에 아주 중요한 차원으로 여겨져 왔다.<sup>18)</sup>

### 1) 가족응집성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로 정의된다.<sup>19)</sup> 이것은 가족원이 그가 속한 가정에 연결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수준-유리(매우 낮음), 분리(약간 낮음), 연결(약간 높음), 밀착(매우 높음)-이 전제된다. 응집성이 매우 높은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의 지나친 동일시 현상이 존재하여 정서적, 지적, 혹은 신체적으로 지나친 밀착을 초래한다. 반면에, 응집성이 매우 낮은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정서적, 지적, 혹은 신체적으로 지나치게 고립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매우 낮은 극단에서 매우 높은 극단까지의 연속선상에서 중심 쪽에 가까울수록 건강한 가족기능이 수행된다고 가정된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 각자가 가족으로부터 적당히 독립된 자율적 상황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적절히 연결된 상호의존 상태를 경험할 때 가족 기능이 균형을 이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Olson 등에 의해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상이한 표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Rev.),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pp. 1-42를 참고할 것.

17) D.H. Olson, C. Russel, and D.H. Sprenkle, 앞의 글, 1979, pp.3-28.

18) 이 두 가지 차원의 중요성에 대한 실증 자료는 B. L. Fisher and D. H. Sprenkle, "Therapists' perceptions of healthy family func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Counseling, 6, 1978, pp. 19-31.을 참고할 것.

19) Olson, Russell and Sprenkle, 앞의 글, 1979; Olson, Portner, and Lavee, 앞의 글, 1985, p. 3; D.H. Olson,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n F. Walsh (ed.), Normal Family Processes, New York, Guilford Press, 1993, pp. 104-137.

현으로 다른 측면에서 가족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적 차원 사이에는 많은 유사성이 있다. 실제로, Minuchin<sup>20)</sup>은 가족 하위체계들간의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경계가 불확실하고 산만한 가족을 밀착 가정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가족에 속한 구성원들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서 습관화된 일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지나치리만큼 신속하고 강도 높은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반면에 하위 체계들간의 경계가 너무 분명하고 경직되어 있는 가족을 유리된 가정이라 표현하고 이런 가정에서는 가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므로 각자의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했다. 따라서 밀착 가정의 아동은 지나친 구속으로 인해 독립적 행동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기 쉬우며, 반면에 유리된 가정의 아동은 소속감, 존경심, 대인관계 능력 등이 부족하여 제멋대로 행동하기 쉽다고 하였다.<sup>21)</sup>

비슷한 맥락에서 Whitaker<sup>22)</sup>는 건강한 가정이란 고도의 내부 통합과 함께 고도의 개별화를 유지하는 가정이라고 밝혀 적절한 수준의 균형 잡힌 가족응집력을 건강한 가족 기능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상태를 가족치료의 목적으로 보았다. Minuchin과 마찬가지로 Whitaker도 부모 하위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境界)의 명확성을 강조해 너무 밀착된 가정의 역기능을 경계(警戒)하였다.

이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Stierlin<sup>23)</sup>은 가족내의 분리와 연결을 물리적 역동성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가족내의 분리와 연결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은 가족내의 서로 상반되는 힘, 즉 원심력과 구심력의 작용으로 파악하면서,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과 함께 가족을 밖으로 이끌어 내는 힘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힘중 어느 한 힘이 다른 힘을 압도하게 될 경우에는 가족에 역기능이 발생하는 반면, 이 두 가지의 힘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작용할 때는 가족 체계가 효율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심력과 원심력의 개념을 가족 양식 차원(stylistic dimension)으로해서 한 축으로 삼고, 가족 구조, 유연성, 가족 및 가족 구성원

20) S. Minuchin,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21) S. Minuchin, 앞의 책, 1974, p. 55.

22) C. A. Whitaker, "Psychotherapy of the absurd: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psychotherapy of aggression", *Family Process*, 14, 1975, p. 4.

23) H. Stierlin, L. Levi, & R. Savard, "Centrifugal versus centripetal separation in adolescence: Two patterns and some of their implications," in S. Feinstein, and P. Giovacchini (Eds.), *Annals of American society: Adolescence psychiatry* 2, 1973, pp. 211-239.

들의 역량 등을 적응 및 변화차원으로 해서 다른 한 축으로 삼아 교차시키면서 Beavers와 Voeller<sup>24)</sup>는 체계 모델(Systems Model)을 개발하였다. 여기서도, 구심력과 원심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족 구조가 변할 때 가족 기능이 원활해진다고 보았다.

Bowen<sup>25)</sup>에게 있어서도 가족치료를 통한 개별적 발달의 목표가 개인의 자율을 보장하고 개인이 원초가족으로부터의 완전히 분리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리는 과제를 이루지 못한 경우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미분화 자아 덩어리(undifferentiated ego mass)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특성은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의 응집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개념들을 분석해보면 응집성 측면의 개념은 자연 곡선적 성격을 띠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응집성의 양극단-유리 또는 밀착-의 형태를 보이는 가족에서는 역기능 현상이 나타나고 적절히 균형을 이룬 가족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은 순기능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두드러지는 현상은, 응집성의 양극단 중에서 특히 높은 응집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가정(enmeshed family, undifferentiated ego mass, centripetal conditions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족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치료 이론을 발달시킨 연구자들의 주요 대상이 정신분열증 또는 그에 가까운 가정들이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Olson Circumplex Model은 응집성을 유리, 분리, 연결, 밀착의 네 수준으로 나누고 유리 및 밀착의 양극단에 속한 가정은 역기능 현상을 보이고 중간 수준(분리 또는 연결)에 속한 가정은 심각한 역기능을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어 응집성의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 모두와 균형상태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가족적응성(유연성)

가족 적응성은 가족이 그의 권력구조, 역할 관계 및 관계에 관한 규칙들을 상황에 따라서 또는 가족 발달 주기상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변화 능력(ability to change)으로 정의되었다가,<sup>26)</sup> 나중에는 가족의 리더십, 역할 관계들, 관계에 관한 규칙들

24) W.R. Beavers & M.N. Voeller, 앞의 글, 1983, p. 89.

25) M. Bowen, "The use of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Comprehensive Psychiatry*, 7, 1966, pp. 345-374.

26) Olson, Russell and Sprenkle, 앞의 글, 1979; Olson, Portner, and Lavee, 앞의 글, 1985, p. 3.

등에 있어서의 변화 양(amount of change)으로 재정의 되었다.<sup>27)</sup> 이와 함께, 사실상 적응성(adaptability)이라는 용어는 적응(adaptation)의 개념과 혼동된다는 이유로 유연성(flexibility)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후부터는 바뀐 용어인 유연성으로 적응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유연성은 가족체계의 유연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응집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연성 또한 하나의 연속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여기에도 그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수준-경직(매우 낮음), 조직화(약간 낮음), 유연(약간 높음), 혼란(매우 높음)-이 전제된다. 유연성이 매우 낮은 가족(경직된 체계)은 가족의 리더십, 역할 관계, 가족관계 등의 변화가 요청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변화할 수 없음으로서 역기능을 초래한다. 반면에 유연성이 지나치게 높은 가족(무질서 체계)은 위기 대처 양상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에 가해지는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나 가족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안정과 변화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중간 수준-조직화 및 유연-이 가족 구성원 및 가족 전체에 순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족이론에서 유연성은 일찍이 항상성(homeostasis) 또는 체계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차원에서 다루어졌었다.<sup>28)</sup> 즉, 가족체계는 계속되는 내, 외적인 변화 요구에 대응하여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반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Jackson은 가족 체계를 항상성을 중심으로 한 규칙이 지배하는 체계(homeostatic, rule-governed system)로 정의하고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에서 그 환자가 회복되려 할 때 그 가족 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거친 반응을 이러한 항상성에 대한 강력한 기제의 예로 들었다.<sup>29)</sup> 그러나 가족은 안정 지향적 성향과 더불어 변화 지향적인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적절한 수준에서의 균형이 가족 기능에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이 Speer<sup>30)</sup>와 Wertheim<sup>31)</sup>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Speer와 Wertheim은 가족 체계의 변화, 성장, 그리고 자기 방향성(self-direction) 등에 대한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 과정(family

27) D.H. Olson, 앞의 글, 1993, pp. 104-137; D.H. Olson, 앞의 글, 1994, p. 476.

28) J. Haley, 앞의 글, 1964, pp. 41-65; D. D. Jackson, "The Study of the Family", Family Process, 4, 1965, pp. 1-20.

29) D. Jackson, 앞의 글, 1965, p. 14.

30) D. C. Speer, "Family systems: Morphostasis and morphogenesis, or is homeostasis enough?", Family Process, 9, 1970, pp. 259-278.

31) E. Wertheim, "Family unit therapy and the science and typology of family systems." Family Process, 12, 1973, pp. 361-376; E. Wertheim, "The science typology of family systems, II: Further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Family Process, 14, 1975, pp. 285-308.

process)은 두 가지의 상호 교류적 힘, 즉, 형태안정성(morphostasis)과 형태발생성(morphogenesis)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형태안정성은 체계의 안정을 책임지는 자기 교정적 과정(self-correcting process)이며, 체계에 지속성과 일관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성격과 관련하여 Wertheim은 “어느 정도의 형태안정성이 없다면 가족 체계는 하나의 일관성 있고 자생력있는 사회 집단으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sup>32)</sup> 라고 하였다. 형태안정성에 속하는 개념들로서는 가족 규칙들(family rules), 공유된 의미들(shared meanings), 가치, 기대 등이다. 이러한 속성들은 가정을 질서 정연하게 만들고 가족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며, 가족 체계가 밀접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에 형태발생성 역시 가족 기능을 순조롭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속성이다. Wertheim에 의하면, “형태발생성이란 가족 체계의 변화, 성장, 혁신 및 자생력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sup>33)</sup> 고 하였다. 형태발생성은 체계가 기존 규칙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새로운 방향 또는 새로운 해결책의 선택을 의미한다. 형태안정성과 형태발생성 사이의 균형이 있을 때 가족 체계는 그의 일체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변화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Wertheim은 “형태안정성은 가족 해체에 대한 안전장치이고, 형태발생성은 부적응성 경직과 지루하고 비창의적인 체계 유지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sup>34)</sup>라고 함축적으로 밝히고 있다.

Minuchin<sup>35)</sup>은 유연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외부 또는 내부의 압력이 가정에 가해질 경우(예, 가족 발달상의 변화, 새 식구의 탄생, 기존 식구의 사망, 혹은 인생 주기의 변화 등), 가족의 변화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스트레스에 직면해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가족 상호간의 교환 형태, 경계 등이 더욱 경직되어 대안을 찾으려 하지 않거나 제시된 대안을 회피하는 가족은 문제가 있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Whitaker<sup>36)</sup> 또한 가족 유연성과 매우 유사한 몇 가지 개념을 강조하였다. 그 중 하나가 역할 유동성(role flexibility)에 대한 강조였다. 어떤 가족 구성원도 하나의 경직된 역

32) E. Wertheim, 앞의 글, 1973, p. 365.

33) E. Wertheim, 앞의 글, 1973, p. 364.

34) E. Wertheim, 앞의 글, 1975, p. 306.

35) S. Minuchin, 앞의 책, 1974, p. 60.

36) C. A. Whitaker, "Psychotherapy of the absurd: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psychotherapy of aggression", Family Process, 14, 1975, pp. 1-16; C. A. Whitaker, "A family therapist looks at marital therapy", In A. S. Gurman, and D. G. Rice (Eds.), Couples in Conflict: New Directions in Marital Therapy. New York: Aronson, 1975.

할에 영구적으로 고착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유동성 있는 역할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가족 내 동맹의 변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했다. 삼각관계(triangles)의 형성이 고착되지만 않는다면 별로 해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Whitaker는 가족은 그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험한 세상사 가운데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안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은 극단의 형태발생성과 형태안정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고 하겠다.<sup>37)</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가족 치료 이론이 발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관점 속에서 상당한 정도의 개념적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응집력, 가정 적응력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III. 검증 모델의 구성 및 연구가설

Olson Circumplex Model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적 가설-역기능 가족은 극단의 가족 유형에서 많이 발견되고 순기능 가족은 균형 가족 유형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것-에 대한 실증적 검증 작업들의<sup>38)</sup> 결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연구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대별된다. 모델의 곡선적 가설(curvilinear hypothesis)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은, (1) 대개 FACES 도구를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했고, (2) 기능적 또는 비임상 가족그룹(functional or nonclinical family group)과 역기능적 또는 임상적 가족 그룹(nonfunctional or clinical family group)을 비교하였다. 반면에, 곡선적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는 연구들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적응성 및 응집성과 가족 기능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내지 못한 연구<sup>39)</sup>, (2) 적응성 및 응집성과 가족 기능 사이에는 곡선적 관계보다는 직선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sup>40)</sup>, 그리고 (3) 응집력은 가족 기능을 구별해 내고 있지만, 적응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밝힌 연구<sup>41)</sup> 등이다. 이러한 연구 결

37) Olson, Russell, & Sprenkle, 앞의 글, 1980, p. 977.

38) 이들 연구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R.G. Green, R.N. Harris, Jr., J.A. Forte, and M. Robinson, "Evaluating FACES III and the Circumplex Model: 2,440 families," *Family Process*, 30, 1991, p. 58을 참고할 것.

39) 임상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임상 및 비임상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혼재함.

40) 캐나다의 대학촌 사회에서 무작위 추출된 집단, 대학생 집단, 정신질환자 가족들에 대한 연구들에서 밝혀짐.

41) 임상 가족과 비임상 가족을 비교한 연구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옴.

과들의 불일치가 시사하는 점은, (1) Olson Circumplex Model이 제시하는 가설이 잘못 되었거나, (2) 그 모델을 측정하는 도구가 잘 못되었거나, (3) 모델과 측정 도구 모두 잘못 된 경우 중의 한가지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델이 합측하고 있는 가설 자체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학자들에 의한 가족 관계 역동에 대한 임상적 분석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lson 자신도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재점검 작업에서 자신의 모델의 개념과 가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른 측정 도구<sup>42)</sup>를 통해 보여주었다.<sup>43)</sup>

자신의 모델에 대한 재점검, 상충되는 연구 결과를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점, 그리고 여러 연구자들로부터의 조언<sup>44)</sup>을 종합하여 Olson은 자신의 모델과 그것의 측정과 관련된 몇 가지 점을 수정하였다.<sup>45)</sup> 첫째, 모델의 두 가지 차원 중의 하나인 적응성(adaptability)의 명칭이 유연성(flexibility)으로 바뀌면서 개념도 약간 수정되었다.<sup>46)</sup> 둘째, 측정 도구인 FACES III가 Circumplex Model이 제시하고 있는 곡선적 성격의 응집성 및 유연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FACES III에 의해 측정되는 응집성 및 유연성은 직선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수정하였다.<sup>47)</sup> 즉, 높은 응집성 점수는 균형 잡힌 가정을 나타내며 낮은 점수는 유리된 가정을 의미한다. 지나친 응집성의 특성인 밀착 가정은 FACES에 의해 측정되지 못한다. 또한 높은 유연성 점수는 균형 잡힌 가정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경직된 가정을 나타내며, 지나친 유연성의 특성인 혼란 가정은 FACES에 의해 측정되지 못한다.

42) FACES III가 Olson의 모델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곡선적 성격을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Olson은 Clinical Rating Scale(CRS)을 통해 가족 유형을 측정해 그가 제시한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Clinical Rating Scale은 응집성과 적응성의 4가지 수준을 각각 나타내는 지표들과 그에 대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평가자는 video taped된 가족 과정을 관찰하면서 각 차원에 대한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다. 응집성의 내적 신뢰도는 0.95, 적응성의 내적 신뢰도는 0.94, 그리고 평가자간 일치도는 95%, 91%으로 보고되고 있다.

43) D.H. Olson, "Commentary: Curvilinearity survives: The world is not flat," Family Process, 33, 1994, p. 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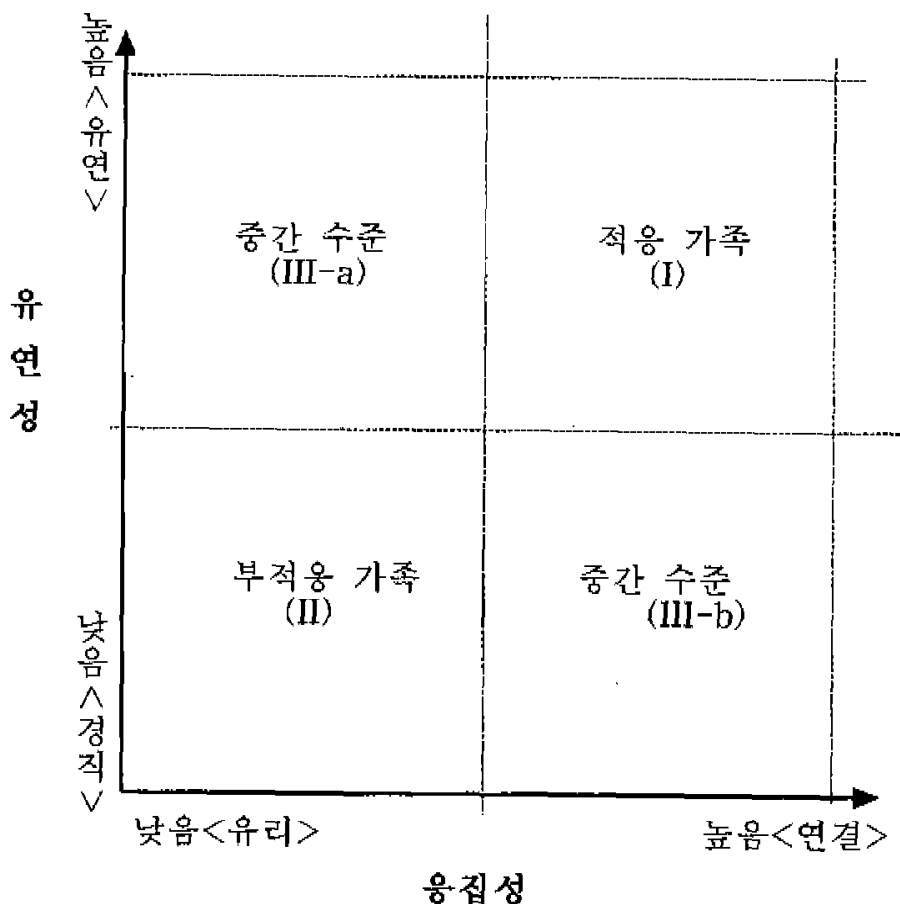
44) Olson 모델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은 R.B. Cluff, M.W. Hicks, and C.H. Madsen, Jr., "Beyond the Circumplex Model: I. A moratorium on curvilinearity," Family Process, 33, 1994, pp. 455-470을 참고할 것.

45) 상세한 수정 사항은 D.H. Olson, "Commentary: Three-dimensional (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III," Family Process, 30, 1991, pp. 74-79. 와 D.H. Olson, "Commentary: Curvilinearity survives: The world is not flat," Family Process, 33, 1994, pp. 471-478.을 참고할 것.

46) 상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II. 2. 2) 가족적응성(유연성) 부분을 참고할 것.

47) D.H. Olson, 앞의 글, 1991, p. 75.

이상에서 요약된 것을 종합하면, FACES III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모델의 성격은 Olson이 애초 제시했던 초기 모델(<그림 1> 참조)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즉, 응집성 및 유연성이 낮은 수준(가족 역기능을 초래하는 상태)에서 적정수준(가족의 순기능을 초래)까지의 영역만을 FACES로 측정하여 검증할 수 있을 뿐, 적정 수준을 지나쳐 극단 수준(다시 가족 역기능을 초래)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측정, 검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정 내용을 종합하고, Olson의 초기 모델이 내포하고 있는 가정-중간 수준의 응집성 및 유연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가족은 순기능 가족이며 하극단 부분의 응집성 및 유연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가족은 역기능 가족이라는 것-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 (<그림 2>)와 같은 수정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 수정 모델은 아직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초기 Olson 모델이 제시한 곡선적 가설을 담고 있는 동시에, 측정 도구의 한계로 인하여 검증될 수 없는 상극단 부분의 응집성 및 유연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이다.



<그림 2> FACES III로 검증 가능한 수정 모델



<그림 2>에서 오른 쪽 위의 집단(I)은 응집성과 유연성이 모두 높은 집단을 의미하며 적응 가족은 이 집단에 속할 것이라고 가정된다. 반면에 왼쪽 아래의 집단(II)은 응집성과 유연성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서 부적응 가족은 이 집단에 속할 것이라고 가정된다. 왼쪽 위의 집단(III-a)은 응집성은 낮고 유연성은 높은 집단을 의미하고 오른쪽 아래 집단(III-b)은 응집성은 크고 유연성은 낮은 집단을 의미하는 데 이 두 집단 모두는 Olson의 모델에서 중간 수준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었다. 따라서 여기서도 중간 수준 집단으로 분류한다. 수정 제시된 모델에 나타난 가족의 유형을 정리하면, 적응집단, 부적응 집단, 중간수준 집단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수정 제시된 가족 체계 유형과 아동의 부적응 문제 및 가족 기능과의 상호관계에서 다음의 연구 가설들이 도출될 수 있다.

가설 1: 응집성과 유연성의 두 가지 차원에 기준 하여 분류된 가족체계의 유형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수준, 주 양육자의 결혼 만족도, 부부간의 의견 일치도, 부모-자녀간 관계상의 문제 등에 의해 나타나는 가족 기능의 양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응집성 및 유연성의 두 가지 차원이 모두 낮은 유형(II)의 가족에서 아동의 부적응 행동 및 기타 가족 역기능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며, 두 차원이 모두 높은 유형(I)의 가족에서는 역기능 수준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한 차원은 높고 다른 차원은 낮은 가족 유형(III-a, b)은 역기능 수준이 중간 수준일 것이다.

또한,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과연 가족 체계 유형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가설 2: 위의 <가설 1>이 수용될 경우 아동 부적응 행동을 종속변수로 보고 가족 체계 유형, 주 양육자의 결혼 만족도 및 부부간의 의견 일치도, 부모-자녀간 관계상의 문제 등을 독립변수로 가정했을 때,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요인은 가족 체계 유형일 것이다.

## IV.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연구의 대상은 임의 선정된 서울시내 소재 2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6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가정으로서, 각 학교에서 3개 학급씩을 선정 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에 필요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아동들에게 배포한 후 집에 가져가 주 양육자와 함께 답한 다음 다시 가져오게 하였다. 설문지는 주 양육자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관찰하는 부분, 자신의 결혼 만족도, 배우자와의 의견 일치도를 답하는 부분과, 아동 자신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답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배부된 총 352부의 설문지중 246부가 수거되었다. 이중 부모, 아동 응답 부분중 아동만 응답한 6부를 제외한 총 24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측정도구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지는, 가족 체계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확인하기 위한 척도, 주 양육자의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아동이 인지한 부모-아동과의 관계 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아동의 기본적 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1) 가족 체계 유형 측정도구

가족 체계 유형에 관한 Olson Circumplex Model을 측정하기 위하여 Olson, Portner, Lavee<sup>48)</sup>가 개발한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 척도 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FACES-III)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응성 및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 각각 10문항으로 되어있다. 사용 지침서에 제시된 내적 신뢰도(알파 신뢰계수)는 응집성이 0.87, 적응성이 0.7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응집성이 0.84, 적응성이 0.74이었다. 홀수 문항의

48) D. H. Olson, J. Portner, and Y. Lave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n D. Olson, H. McCubbin, H. Barnes, A. Larso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Rev.)*,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pp. 1-42.

합이 응집성 점수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이 높음(연결된 상황, connected)을 나타낸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밀착 가족은 이 도구를 통해 측정되지 않는다. 짝수 문항의 합은 유연성 점수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연성이 큼(조직화된 상황, structured)을 나타낸다. 혼동 가족은 이 도구를 통해 측정되지 않는다.

FACES III가 곡선적 성격의 응집성 및 적응성(유연성)을 나타낸다고 보았을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4가지 수준을 정하기 위한 분류점들이 제시되었으나 양 개념 차원의 곡선적 성격을 포기하고 직선적 성격을 인정한 후에는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분류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응집성: 37.00; 유연성: 25.85), 중간값(응집성: 38; 유연성: 25), 그리고 최빈값(응집성: 39; 유연성: 24)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집성의 경우, 38점 이상을 높은 점수, 그 미만을 낮은 점수로 분류하였고, 유연성의 경우, 25점 이상을 높은 점수, 그 미만을 낮은 점수로 분류하였다.

## 2) 아동의 부적응 행동 측정 도구

가정 내에서 아동의 부적응 행동 유무를 측정하기 위하여 Quay와 Peterson<sup>49)</sup>이 개발한 행동문제 조희표(Revised Behavior Problem Checklist, RBPC)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7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뉘어 총 89문항으로 되어 있다. 하위영역은 행동장애, 공격성, 집중력 문제·미성숙, 불안·수줍음, 정신병적 행동, 과잉행동, 회피행동 등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항목에 대한 Cronbach 알파 계수는 0.95였다. 각 하위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행동장애(Conduct Disorder, CD): 행동이 튀고 양육자의 말을 잘 듣지 않음, 말대꾸를 잘하고 화를 잘냄, 참을성 없음, 남에게 못되게 굴면서 괴롭힘 등. 알파 신뢰계수는 0.88.
- (2) 사회화된 공격성 (Socialized Aggression, SA): 불량학생과 어울리며 늦게까지 거리에서 방황함, 남의 물건을 훔치며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를 무시함, 속이기를 잘하며 때로 가출함. 알파 신뢰계수는 0.73.
- (3) 집중력 문제·미성숙 (Attention Problems-Immaturity, AP): 집중력이 부족하

49) H.C. Quay, and D.R. Peterson, Manual for the revised behavior problem checklist, Authors, 1987.

며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음, 무책임하며 남의 말에 잘 넘어감, 생각과 동작이 느림, 혼자서 무슨 일을 못하며 쉽게 포기함,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함, 멍청하고 물건을 쉽게 잘 잃어버림 등. 알파 신뢰계수는 0.87.

- (4) 불안·수줍음 (Anxiety-Withdrawal, AW): 쉽게 당황하고 수줍어함,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있음, 과잉반응하며 쉽게 상처 입음,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일을 시도 못함 등. 알파 신뢰계수는 0.75.
- (5) 정신병적 행동 (Psychotic Behavior, PB):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함,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며 이상한 생각을 말함, 망상적인 얘기를 함, 상상을 진실처럼 말함,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 등. 알파 신뢰계수는 0.56으로 매우 낮았음.
- (6) 과잉행동 (Motor Excess, ME):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함,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 편안하게 있지 못함, 항상 부산하고 꿈틀거림, 신경과민 등. 알파 신뢰계수는 0.61로 매우 낮았음.
- (7) 회피행동: 이것은 본래의 척도에서는 기타행동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항목의 내용을 참작하여 본 연구에서는 회피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자기 이외의 타인 또는 주변환경에 대해 관심이 적거나 전혀 관심 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임. 알파 신뢰계수는 0.71.

부모들이 아동의 행동에서 어떤 항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한번도 관찰한 적이 없거나,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에는 '0'에, 어느 항목에서 경미한 정도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1'에, 심각한 정도의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2'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항에 대한 점수의 합으로 각 하위영역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이상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 3) 결혼 만족도 및 배우자간 의견 일치도

주 양육자가 느끼는 전반적인 결혼 적응도와 배우자와의 의견 일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Locke와 Wallace<sup>50)</sup>가 개발한 Locke-Wallace 결혼적응도 측정도구(Locke-Wallace

50) H.J. Locke & K.M. Wallace, "Locke-Wallace Marital Adjustment test," In K. Corcoran & J. Fisher,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New York: Free Press, 1987, p. 451-453.

Marital Adjustment Test, LWMAT)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항목은 전반적인 결혼 만족도에 대한 질문이며 나머지 14항목은 배우자간의 일상 생활에서의 의견 일치도에 관한 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14개의 항목중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2항목(9번, 11번)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알파 신뢰계수는 0.72이었다. 이 측정도구는 조화가 잘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를 잘 구분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1)</sup>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 및 의견 일치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 4) 부모-아동 관계상의 문제

어머니(또는 양육자)와 아동, 그리고 아버지(또는 양육자)와 아동사이에 관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Hudson<sup>52)</sup>이 개발한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태도 척도(Children's Attitude toward Father, CAF)와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태도 척도(Children's Attitude toward Mother, CAM)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관점에서 부모-아동간의 관계 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상의 문제가 많음을 나타낸다. 이전의 연구에서 보고된 알파 신뢰계수는 CAF가 0.95, CAM이 0.94이며, 측정 후 측정(test-retest) 상관계수는 CAF가 0.96, CAM이 0.95로서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알파 신뢰계수는 CAF, CAM 모두 0.90이었다. 이 도구는 양육자와 문제가 있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잘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3)</sup> 본 연구의 실제 분석에서는 양친중 한 분의 부재로 인하여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한 태도만 답한 경우가 있어 CAF와 CAM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 3. 통계분석 방법

〈가설 1〉을 검증함에 있어 계속적인 일원변량분석으로 인한 오차율이 부풀려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원변량분석(one-way MANOVA)을 사용하였으며 사후 평균값 차이의 검증을 위해서는 Tukey-검증법을 사용하였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51) K. Corcoran & J. Fisher,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New York: Free Press, 1987, p. 451.

52) W.W. Hudson, The clinical measurement package: A field manual, Chicago: Dorsey Press, 1982.

53) K. Corcoran & J. Fisher, 앞의 책, 1987, pp. 421-422.

## V. 결과

### 1. 인구학적 특성

분석에 포함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총 240명중 남학생이 115명(47.9%), 여학생이 125명(52.1%)으로서 남녀 구성 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다. 가족 체계의 형태, 결혼 행복도 및 배우자간 의견일치도 등에 대하여 응답한 양육자의 분포는 어머니가 총유효응답자(N=227)의 78%(n=177)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아버지(19.8%)였으며 나머지는 친척 또는 할머니였다. 응답자들의 가족구조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총유효응답자(N=235)의 88.9%(n=209)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어머니와 자녀(4.7%; n=11), 아버지와 자녀(1.3%; n=3) 순이었다. 응답자의 월 소득 총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150만원에서 199만원 사이가 총유효응답자(N=233)의 23.2%(n=54), 100만원에서 149만원 사이와, 200만원에서 249만원 사이가 동일하게 21%(n=49)를 보였으며, 다음이 300만원 이상(14.2%; n=33), 250-299만원(13.3%; n=31), 99만원 이하(7.3%; n=17) 순으로 나타나 고른 분포를 보여주었다.

### 2. 가족 체계 유형에 따른 종속변수값 및 통계적 가정 검증

가설들의 검증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응답자의 분포는 응집성과 유연성이 모두 높은 적응가족(유형 I)에 80명, 응집성과 유연성이 모두 낮은 부적응가족(유형 II)에 82명, 응집성은 낮고 유연성은 높은 중간수준(유형 III-a)에 40명, 응집성은 높고 유연성은 낮은 또다른 중간 수준(유형 III-b)에 38명이 각각 분포하였다. 두 가지의 중간 수준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형(유형 III)으로 할 경우 여기에 78명이 분포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세 가지 가족체계 유형에 응답자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은 각 가족 체계 유형에 따른 네 가지 종속변수의 평균값 및 표준 편차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가족 체계 유형에 따른 가족 관련 종속변수 값

종속변수 \ 가족 유형	적응 가족 (유형 I)	부적응 가족 (유형 II)	중간 수준 가족 (유형 III)	총합
아동 부적응 행동	20.59 (14.07)	27.99 (18.98)	29.99 (20.25)	26.10 (18.29)

결혼 만족도	23.98 (8.23)	18.59 (8.47)	20.5 (7.6)	21.05 (8.38)
배우자 의견 불일치	71.41 (17.85)	61.79 (19.13)	64.10 (18.84)	65.77 (18.97)
아동-부모 관계문제	37.51 (7.33)	43.87 (9.08)	41.91 (9.41)	41.11 (9.02)
	n=80	n=82	n=78	n=240

(평균값 (표준편차))

각 가족 체계 형태에 따른 종속변수들의 값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적응 가족일수록 가족의 순기능 현상이 나타나고 부적응 가족일수록 가족의 역기능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일치하는 양상이다. 또한 표준편차에서 볼 수 있듯이 적응 가족일수록 편차 값이 작게 나타나 집단 내 동일성이 다른 가족 형태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원변량분석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즉, 종속변수들은 공히 정상분포를 보여야 하며, 동일 변량을 갖고 있다고 간주된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모두 정상분포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 개 종속변수의 분포 형태를 관찰한 결과 정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Stevens<sup>54)</sup>의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다원변량분석 방법은 다변량 정상분포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포용력을 가지므로 다원 정상 분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중다 변량 동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Box's M방식을 사용하여 각 가족체계 유형별 종속변수의 변량을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ox's M=30.50, F 근사치에 의한  $p=0.08$ ). 즉, 중다 변량의 이질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중 정상분포 및 중다 변량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었으므로 통계적인 검증력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54) J. Stevens,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6, p. 216.

### 3. 가설검증 결과

#### 1) <가설 1>의 검증

네 개의 종속변수 평균값간의 차이를 알파 오류율이 부풀어지는 것(familywise alpha error rate)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적 검증 절차를 통해 알아보았다. 보호적 검증 절차란 먼저 네 개의 종속변수 전체가 가족 체계 유형간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전체로 검사하는 종다변량 검증을 실시한다. 여기에서는 Wilks' Lambda로 검증하였다. 만일, 종다변량 검증에서 평균값 간 전체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 가지 가족 체계 유형에 따른 각 종속변수의 평균값 차이를 개별적으로 검사한다. 여기에서는 F-검증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개별 종속변수의 평균값이 세 가지 가족 체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F-검증 결과가 나오면, 세 가지 가족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과 어느 유형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증에 들어간다. 여기에서는 Tukey-검증법을 사용하였다.

세 가지 가족 체계 유형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결혼 만족도, 배우자간 의견 일치도, 아동-부모간 관계 문제 등의 평균값에 차이가 나는지를 전체적으로 검증하였다. Wilks' Lambda값은 0.7987이었고 이에 따른 F-값은 4.82였다. 이것은 알파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p=0.000$ ). 즉,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결혼 만족도, 배우자간 의견 일치도, 아동-부모간 관계 문제 등은 세 가지 가족 체계 유형에 따라 전체적으로 보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속 변수의 평균값이 가족 체계 유형에 따라 전체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세 가지 가족 체계 유형에 따라 개별 종속변수의 평균값이 차이 나는지를 F-검증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표 2>는 개별 종속변수에 대한 F-검증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표 2> 종속변수별 개별 검증(F-검증) 결과

종속변수	그룹간 자승화 평균값(MSB)	그룹내 자승화 평균값(MSW)	F-비율	p 값	결정*
아동 부적응 행동	2134.374	303.780	7.026	0.000	기각
결혼 만족도	527.831	59.933	8.807	0.000	기각
배우자간 의견 일치	962.555	331.108	2.907	0.057	불 기각
부모-자녀 관계 문제	685.199	72.392	9.465	0.000	기각

\* 알파 수준(0.05에서 기각함).



네 개의 가족 기능 관련 변수 중 세 개의 변수(아동 부적응 행동, 결혼 만족도, 부모-자녀간의 관계 문제 등)는 세 가지 가족 체계 유형에 따라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간 의견 일치 정도에서는 그룹내 분산인 자승화값(54,632.884)이 그룹간 분산인 자승화값(1,925.111)에 비해 너무 커,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F-값(0.057)을 보였다 ( $p=0.057$ ). 즉, 배우자간 의견 일치도의 평균값에서는 세 가지 가족 체계 유형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각 가족 체계 유형 내에서의 분산이 커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 변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 개씩 짝을 이룬 그룹간 평균값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하지 않았다.

네 개의 가족 기능 관련 변수중 세 개의 변수 평균값이 세 가지 가족 체계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므로, 세 가지 가족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과 어느 유형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증(pairwise comparison)에 들어갔다. 짝을 이룬 그룹간 평균값 비교는 Tukey-검증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두 그룹을 t-검증법에 의해 비교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평균값 차이를 내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내는 신중한 검사법이다. 즉 영가설의 잘못된 기각(제일종 오류)이 덜 발생하게 하는 검사법이다. <표 3>에 짝비교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표 3> 종속변수들에 대한 가족 체계 유형별 짝 비교 결과

종속변수	비교그룹 (가족 체계유형)	평균값 간의 차이	표준 오차	p-값
아동의 부적응 행동 (-)	부적응 가족(II)-적응 가족(I)	7.3974*	2.868	0.027
	중간 수준(III)-적응 가족(I)	9.3966*	2.917	0.004
	중간 수준(III)-부적응 가족(II)	1.9991	2.917	0.772
결혼 만족도 (+)	부적응 가족(II)-적응 가족(I)	-5.39*	1.429	0.000
	중간 수준(III)-적응 가족(I)	-3.48*	1.440	0.041
	중간 수준(III)-부적응 가족(II)	1.91	1.446	0.385
부모-아동간 관계상의 문제 (-)	부적응 가족(II)-적응 가족(I)	6.3559*	1.378	0.000
	중간 수준(III)-적응 가족(I)	4.3963*	1.391	0.004
	중간 수준(III)-부적응 가족(II)	-1.9597	1.382	0.332

\* 유의 수준 0.05에서 평균값 차이가 유의함.

(-) 값이 낮을수록 순기능을 나타냄./ (+) 값이 높을수록 순기능을 나타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개의 종속변수 모두에서 적응 가족 체계 유형(I)과 부적응 가족 체계 유형(II)간의 짝 비교와 적응 가족 체계 유형(I)과 중간수준의 가족 체계 유형(III)간의 짝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응집성과 유연성이 모두 높은 적응 가족 체계 유형에서만 가족 기능이 순기능을 보이며 나머지 가족 체계 유형(부적응 가족 체계, 중간 수준 가족 체계)에서는 들간의 차별 없이 상대적으로 가족의 역기능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가설 1〉을 충족시켰다. 중간 수준 가족 체계 유형 내에서의 두 가지 형태(III-a, III-b) 사이에서는 모든 종속변수들의 평균값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부적응 행동의 7가지 하위 영역별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불안 및 수줍음이 비교적 제일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집중력의 부족 및 모자라는 행동, 과잉행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순서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아동의 부적응 행동 유형별 문항 평균점수

행동유형	불안/ 수줍음	집중력/ 미성숙	과잉행동	행동장애	회피행동 (자폐행동)	정신병적 행동	사회화된 공격성
문항평균점수	0.4784	0.3982	0.34	0.3295	0.2642	0.1833	0.0849

아동의 부적응 행동의 7가지 하위 영역 수준들이 앞서 살펴본 부적응 행동 전체 수준에서 처럼 가족 체계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적응 가족 체계 유형(I)에서는 7가지 부적응 행동 유형들이 덜 발생하고 부적응 가족 유형이나 중간 수준 가족 유형에서는 많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했다. 검증 결과 7가지 하위 영역 전부에서 가족 체계 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적응가족 체계에서는 7가지 문제 행동 유형들이 덜 발생했으며, 나머지 가족 유형에서는 비교적 많이 발생하였다(모든  $p < 0.05$ ). Tukey-검증법을 이용한 짝비교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 아동 부적응 행동 하위 영역의 가족 체계 유형별 짝 비교 결과

종속변수	비교그룹 (가족 체계유형)	평균값 간의 차이	표준오차	p-값
행동장애	부적응 가족(II)-적응 가족(I)	1.8610	0.904	0.099
	중간 수준(III)-적응 가족(I)	2.8325*	0.918	0.006
	중간 수준(III)-부적응 가족(II)	0.9715	0.913	0.536
집중력 부족/ 미성숙	부적응 가족(II)-적응 가족(I)	1.8256	0.790	0.054
	중간 수준(III)-적응 가족(I)	1.8372	0.800	0.056
	중간 수준(III)-부적응 가족(II)	0.0115	0.795	1.000
불안/ 수줍음	부적응 가족(II)-적응 가족(I)	1.3046*	0.512	0.029
	중간 수준(III)-적응 가족(I)	0.9362	0.519	0.168
	중간 수준(III)-부적응 가족(II)	-0.3684	0.516	0.755
과잉행동	부적응 가족(II)-적응 가족(I)	0.5418	0.240	0.061
	중간 수준(III)-적응 가족(I)	0.6997*	0.243	0.011
	중간 수준(III)-부적응 가족(II)	0.1579	0.241	0.790
사회화된 공격성	부적응 가족(II)-적응 가족(I)	0.4667	0.334	0.342
	중간 수준(III)-적응 가족(I)	1.1399*	0.338	0.002
	중간 수준(III)-부적응 가족(II)	0.6732	0.335	0.110
정신병적 행동	부적응 가족(II)-적응 가족(I)	0.5924*	0.213	0.015
	중간 수준(III)-적응 가족(I)	0.5696*	0.216	0.023
	중간 수준(III)-부적응 가족(II)	0.0228	0.214	0.994
회피(자폐) 행동	부적응 가족(II)-적응 가족(I)	1.1795*	0.465	0.030
	중간 수준(III)-적응 가족(I)	1.4055*	.473	0.008
	중간 수준(III)-부적응 가족(II)	0.2260	0.473	0.882

\* 유의 수준 0.05에서 평균값 차이가 유의함.

불안 및 수줍음, 정신병적 행동, 회피 또는 자폐행동 등에서는 적응 가족 체계와 부적응 가족 체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가설 1>에 제시된 방향대로 결과가 나타났다. 행동 장애, 과잉행동, 사회화된 공격성 등에서는 적응 가족 체계와 중간 수준 사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가설 1>을 부분적으로 만족시켰다. 주의집중

부족 및 미성숙 행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짝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보다 많은 차이가 있어야 통계적 유의함을 보이는 Tukey-검증법에 의해서는 차이를 내지 않고 전체적인 F-검증에서는 차이를 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설 2>의 검증

아동의 부적응 행동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과연 가족 체계 유형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 부적응 행동을 종속변수로 보고 가족 체계 유형, 주 양육자의 결혼 만족도, 부부간의 의견 일치도, 부모-자녀간 관계상의 문제 등을 독립변수로 가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 체계 유형을 제외한 네 변수 사이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가 <표 6>에 제시되었다.

<표 6> 변수간의 피어슨 상관계수

변수	아동부적응행동	부부간불일치	결혼행복도	부모-자녀간문제
아동 부적응 행동	1			
부부간 불일치	-0.213*	1		
결혼 행복도	-0.189*	0.481*	1	
부모-자녀간 문제	0.202*	-0.110	-0.195*	1

\* 유의도<0.05

변수들 간에 적절한 상관성이 나타났고 중다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심각하게 존재하지 않아 회귀분석에 들어간 결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의 변량은 4개의 변수에 의해서 11.8%( $R=0.344$ ;  $R^2=0.118$ )가 설명되었으며, 이것은 유의도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 163)=5.467$ ,  $p=0.000$ ). 이에 대한 회귀 계수가 <표 7>에 제시되었다.

<표 7> 회귀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p-값	R <sup>2</sup> 증가분 ( $\Delta R^2$ )
	B	표준오차	Beta			
(상수)	29.707	8.810				
부부간 의견 불일치	-0.144*	0.082	-0.147	-1.753	0.081	0.025
결혼 만족도	0.072	0.194	-0.032	-0.307	0.712	0.027
부모-아동간 관계문제	0.231	0.158	0.114	1.462	0.146	0.013
가족 체계 유형	-7.794*	3.031	-0.207	-2.571	0.011	0.035

\* 유의도 수준<0.05

가족 체계 유형은 범주 변수에 속하기 때문에 적응 가족 체계를 "1"로, 나머지 가족 체계는 "0"으로 가표기 하여 가변수로 처리한 후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따라서 <표 7>에 나타난 가족 체계 유형의 회귀계수(B)는 가족 체계 유형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다른 독립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 적응가족 체계는 그렇지 않은 가족 체계에 비해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7.794만큼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유의도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네 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과연 가족 체계 유형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독립변수가 나머지 다른 변수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귀분석에 추가될 경우 증가하는 변량의 수치( $\Delta R^2$ )를 구해 비교하였다. <표 7>의 맨 오른쪽 항에 각 변수에 대한  $R^2$ 의 증가분이 표시되어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가족 체계 유형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 수준에 다른 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가 충족되었다.

## VI. 논의 및 함의

초등학교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속한 가정의 응집성 및 유연성에 바탕을 두고 분류한 가족 체계 유형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이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가족 체계 유형에 따라서 부부간의 의견 일치도, 결혼 만족도, 부모-아동 관계상의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가족 기능 양상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설에서 제시된 대로 응집성과 유연성에서 모두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적응 가족 체계 유형에서는 다른 가족 체계 유형에서 보다 아동의 부적응 행동이 적게 나타났으며, 가족 기능 양상도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가족 기능 양상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가족 체계 유형들 중에서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 체계 유형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이 결과는 Olson의 모델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 의미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Olson Circumplex Model의 기본 개념은 응집성과 유연성을 직선적(linear)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곡선적(curvilinear)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응집성이나 적응성이 강할수록 가족 기능이 원만해진다는 개념보다는 응집성 및 유연성이 지나치게 약한 경우와 지나치게 강한 경우는 오히려 가족 역기능 현상을 초래하고 두 차원 모두

적절한 수준일 때만이 가족 기능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FACES-III에 의해 측정된 응집성 및 유연성은 직선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된 높은 응집성 점수는 균형 잡힌 가정을 나타내며 낮은 점수는 유리된 가정을 의미한다. 응집성이 지나친 것을 의미하는 밀착 가정은 본 연구에서 FACES-III에 의해 측정되지 못했다. 같은 맥락에서 높은 유연성 점수는 균형 잡힌 가정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경직된 가정을 나타낸다. 유연성이 지나친 경우를 의미하는 혼란 가정은 본 연구에서 FACES-III에 의해 측정되지 못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의 적응 가족 체계는 곡선적 성격을 지닌 응집성 및 유연성이 모두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정이라는 것이다. 지나친 응집성과 지나친 유연성이 결합되어 만드는 극단 가족 체계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기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는 다른 가족 기능 양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확인은 심각한 문제를 이미 갖고 있는 임상 가족을 대상으로 Olson이 개발한 Clinical Rating Scale<sup>55)</sup>을 이용하여 검증 가능하리라 본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에 비추어 예방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억제하고, 원만한 가족 기능 양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가 적절하여 가족 구성원 각자가 가족으로부터 적당히 독립된 자율적 상황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적절히 연결된 상호의존 상태를 경험해야 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가족이 안정 지향적 성향과 더불어 변화 지향적인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가족 체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자기 교정적 과정과 가족 체계의 변화, 성장, 혁신을 주도하는 과정과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밝히고 넘어갈 점은 가족 체계 형태가 가족 구성원들의 부적응 행동에 원인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가족 체계와 가족원의 행동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인과 관계이기보다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이다. 즉,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가족 구성원의 문제로 인하여 가족 체계 유형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가족 내부 체계 형태뿐 아니라 아동의 신체적 상태, 가족 밖에서의 인간 상호관계 형태, 그리고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상황 등 다면적 수준에서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어느 요인이 먼저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가족 체계 유형과 가

55) V. Thomas, & D.H. Olson, "Circumplex model: Curvilinearity using Clinical Rating Scale (CRS) and FACES III, The Family Journal, 2, 1993, pp. 36-44를 참조할 것.

족 구성원의 문제를 순서적으로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Jackson<sup>56)</sup>이 밝혔듯이 가족 체계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일상적인 생활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삶의 규칙들이 만들어 내는 가족 게임(family game)이라는 면에서 볼 때, 가족 체계 유형이 먼저 형성되고 이것이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가족 내부 또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위기를 기존의 가족 체계 형태를 유지한 채로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가 출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가족 체계 유형에 초점을 맞춘 각종 가족내 문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은 유효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가족 구성원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 또는 증세의 배경에는 가족 체계라는 가족 특성을 대표하는 상황 맥락(situational context)이 존재함을 암시해 주고 있다. 즉, 가족 구성원의 부적응 문제, 특히 아동의 부적응 문제는 아동 개인 자신의 부적응, 부모 중 어느 한 사람과의 관계상의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아동과 부부 그리고 다른 가족원 모두를 전체로 보고 파악되는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 형태에 기초해 그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점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사회사업가의 개입이나 예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하나는, 문제를 표출시키는 가족의 체계 유형보다는 나타난 증세에만 초점을 맞춘 채 아동 문제 치료 또는 가족치료에 임할 경우 많은 시행착오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즉, 가족체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증상적 문제가 표출됨에도 불구하고, 표출된 증세에 따른 각종 문제 영역의 전문직으로부터 중복적인 개입을 받을 경우 개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 행동문제, 청소년 가출, 부모의 알코올 중독, 배우자 학대, 성적 학대 등의 여러 문제가 동일 가정의 체계상의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전문직 또는 관심 분야에서의 개입을 부를 경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증상에 따른 치료 접근을 할 경우,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분석 작업을 등한히한 채 개인에 초점을 보다 많이 둔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중 한사람의 증상을 감소 또는 제거한다고 해서 곧 동일 가족내의 동일 구성원 또는 다른 구성원에게서 새로운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가족체계의 변화 없이 증세를 치료한다는 것은 증세의 임시적 조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56) D. Jackson, 앞의 글, 1965, p. 14.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가족 기능 양상 변수들을 가족 체계 유형과 관련하여 상호 관계를 추적하여 보았다. 이는 가족이 나타내는 증상보다는 가족 체계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 문제의 행동을 진단,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부분이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문제를 야기하는 가족 체계 유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가에 대한 연구이다. 즉, 가족의 응집성 및 유연성이 너무 낮은 극단의 가정이나, 너무 높은 극단의 가정을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가족 변화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다.